

보성-맥도날드, 농특산물 활용 맞손

제품 개발·판로확대 상생협력

내일 '녹돈 버거' 축제서 협약

시식회·축하공연 등 행사 다채

보성군과 맥도날드가 보성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판로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 강화에 나선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4일 한국 차문화공원에서 개최되는 '보성녹돈 버거 페스티벌'에서 맥도날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성군 김철우 군수와 한국 맥도날드 김기원 대표가 직접 참석, 상호 우호를 도모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담았다.

맥도날드는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한국의

맛)' 프로젝트의 하나로 '보성녹돈 버거'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으며, 맥도날드 판매점이 없는 보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보성녹돈 버거 페스티벌'을 이번에 개최하게 됐다.

보성녹돈 버거 페스티벌은 오는 14일 한국차 문화공원 잔디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열린다.

개그우먼 김신영이 1일 점장으로 참여하는 '맥도날드 1일 보성점'에서는 선착순 500명에 게 녹돈버거 시식의 기회가 제공된다. 전남도청 펜싱팀이 일일강사로 참여하는 맥도날드 스포츠클럽, 어린이 놀이동산, 육종완밴드, 송가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군민 참여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보성녹돈 버거 페스티벌'에서 보성차 무료 시음회, 우치 울버썬 누룽지피자 만들기 체험, 보성물 홍보, SNS이벤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성녹돈 버거는 보성의 녹차 잎을 먹고 자란

녹돈 패티로 만들어져 영양 만점의 풍부한 육즙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보성녹차의 브랜드가치와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맥도날드의 경영철학이 만나 지역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녹차수도 보성의 청정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맥도날드와 협력해 지역의 농특산물 판로확대와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행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성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맥도날드 보성녹돈 버거 광고에는 실제 보성에서 차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직접 출연했으며, 향토민요 콘셉트의 '스르르 타령'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보성에서 찾은 한국의 맛을 널리 알리고 있다. /보성=백종두 기자

광양, 야경시티투어 15일 출발

8월 말까지 금·토·일 운영

광양시가 오는 15일부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의 감성 문화와 아름다운 별빛 야경을 두루 즐길 수 있는 광양야경시티투어를 운영한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8월 말까지 한여름에만 운영하는 광양야경시티투어는 매주 금요일·일요일 여행자들의 주말 저녁을 책임질 계획이다.

야경투어는 순천역, 광양읍터미널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뜨거운 한낮에는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광양와인동굴 등 시원하고 폭격 있는 실내 문화공간을 즐긴다.

광양와인동굴은 항상 17.5도를 유지하는 여름 성지로 와인은 물론 박상화 아티스트의 '사유의 정원', '빛의 판타지아' 등 환상적인 미디어아트까지 선사한다.

저녁에는 멋과 낭만이 가득한 서천변 광양불교기 특화거리에서 여유로운 식사와 산책을 즐긴다. 본격적인 야경투어로 구봉산 전망대, 이순신대교, 선사인 해변공원 등 반

짝반짝 빛나는 광양의 밤을 만끽하고 광양읍터미널이나 순천역에 도착하는 코스다.

구봉산전망대는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야경명소로 신비한 빛을 발하는 봉수대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찬란한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이순신대교 건너 모도에서는 철로 만든 하프로 불리는 수려한 이순신대교, 광양제철소, 광양컨테이너부두, 시가지 등을 한눈에 조망한다.

해오름육교는 태양이 광양만 물결 위에서 함차게 도착하는 형상으로 은은한 빛의 선율을 이루며 야경투어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광양야경시티투어에 참여하려면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예약해야 하며, 5명 이상 예약 시 운행한다. 20인 이상 단체 예약 시에는 평일에도 운행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군인·경로·학생 2,000원, 장애인·미취학아동 1,000원이며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다. /권동현 기자



순천시가 개최한 '문화인 쌀롱데이'가 2,00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순천시 제공

순천, '문화인 쌀롱데이' 성료

순천시가 최근 순천문화도시센터와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개최한 '제1회 문화인 쌀롱데이'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문화예술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

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순천문화의거리 일원에서 쌀롱 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순천문화도시센터와 참여 확약을 맺은 카페, 공방, 식당, 플라마켓 등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60여 점포가 동참했으며, 행

사당일 2,000여 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 날 참여한 점포들의 매출 합계는 약 2,000만 원으로 다수의 점포들이 기존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천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으니 지역민들과 함께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보완점을 고민해 한층 더 내실 있는 8월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경식 기자

고흥, 예비 청년 창업가 8명 지원

1인당 최고 1,800만원

고흥군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근 고흥 청춘누리에서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 지원과 창업 기반조성을 위한 '고흥군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사업 선정자와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명을 대상으로 2억 500만 원을 지원해 신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청년들의 이탈

방지와 청년인구 유입 등에 이바지했다.

이번 대상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로 창업교육과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8명으로 1인당 최고 1,800만 원까지 창업 지원금을 지원 받게된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2박 3일 동안 사업가를 위한 순환학습이론과 사업계획 수립, 수익 모델 발굴을 비롯한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창업교육을 받았다. /고흥=진종언 기자

섬진강권 4개 지자체, 협력 뉴딜사업 선정

구례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한 2022년 지자체간 협력 뉴딜 공모사업에서 전남 구례군·곡성군·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연계 신청한 '섬진강 디지털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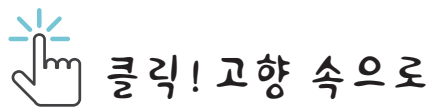
이번 공모사업은 정부의 뉴딜사업 중에서도 지자체간 협력과 연계효과를 중요시 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총 8개 사업이 선정됐다.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4개 지자체는 지난 2020년 섬진강 홍수피해를 계기로 지자체간 연대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섬진강 하류

지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는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은 4개 지자체가 향후 하나의 광역 관광권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4개 지자체가 공동 발굴한 디지털 뉴딜 분야 사업이다.

2023년까지 총 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존 시·군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MZ세대에 맞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섬진강 디지털 관광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례=손석봉 기자



여수 여서동 부녀회, 에어컨 청소 봉사

여수시 여서동부녀회는 최근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순회하며 에어컨 청소 봉사를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여서동 부녀회원 10여 명은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대지마을 경로당 등 15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도 묻고 다정하게 말동무도 해드리며,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고 작동 상

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고은숙 부녀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오랜만에 경로당을 방문하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원하게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소 봉사를 추진했다"며 "불볕더위가 누그러질 때까지 지속해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보성 별교읍, 취약계층 반찬 나눔행사

보성군 별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추진위원회가 최근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반찬 나눔행사를 가졌다.

별교 여성자원봉사회, 고향생각주 부모님, 생활개선회 등 농촌중심지활성화 추진위원회 20여 명은 열무김치와 돼지고기 장조림 등 여름철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 어르신들 60여 가정에 전달했다.

김미숙 별교여성자원봉사회장은 "정성으로 준비한 밑반찬으로 더위에 지친 이웃들이 건강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라며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성향초 학생들, 광양시의회 견학

광양시의회가 최근 성향초 6학년 학생들이 견학을 위해 의회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향초 학생들은 희망 사항이 적힌 48통의 손 편지를 시장의에게 전달했다. 편지에는 중마동과 성향동을 잇는 자전거 도로개설과 소방안전센터 개설, 무더위 쉼터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러 학생들은 시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영배 의장은 "학생들이 마을별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조사하고 의견을 쏘아 고맙다"며 "학생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신경써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동현 기자